

제주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도, 2주간 시범 운영후 개방확대 논의 결과 “시기상조”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속... 전국 확산 우려” 마을회관 등 사용 현행대로 금지·경로당도 휴관 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의 산발적·집단적 감염 지속 상황을 고려, 공공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 30일 전면 유보 결정을 내렸다.

도는 지난 18일부터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 공공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시범 개방을 시작했다.

약 2주간의 시범 개방 운영 후 추가 개방 확대를 논의했지만 공공시설 전면 개방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

는 판단이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고 실내체육시설 등 밀집 접촉이 우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들도 고려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제주형 생활방역 위원회를 개최, 각 시설별 시범 개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세부 계획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 전면 유보 결정에 따라 시설 운영 시에는 현행 방침대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사전 예약제·정원 제한 등을 통해 입장이 허용된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회의나 행사는 가급적 화상 혹은 서면회의로 개최하되, 법률 규정상 의무사항 등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30명 이내의 소규모로 개최된다.

다만 법정기념일이나 도정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 도의회 등과 협의된 행사 등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민간단체 주관 행사 역시 불가피한 경우 도민 대상 행사에 한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최하되, 행사기간·방법·규모, 방역 계획 등 세부 사항은 행사주관 단체와 관련 부서간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 운영이 결정된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도는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의 사용도 현행대로 금지되며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도 향후 별도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이 유지된다.

향후 공공시설 개방 확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40개 유형별 전담부서와 재논의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백금탁기자

도, 58개 마을 연안어장에 수산종자 270만마리 방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5개 품종 270만 마리가 마을 및 연안어장에 방류된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예산 27억원을 들여 도내 80개 마을 및 연안어장에 전복 90만 마리, 홍해삼 109만 마리, 오분자기 20만 마리, 어류 144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올 상반기 22개 마을어장에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등 수산종자 93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이어 하반기 58개 마을 연안어장에 전복 42만 마리, 홍해삼 79만 마리, 오분자기 5만 마리, 어류 144만 마리 등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방류 품종 중 홍해삼은 도 특산품종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서식환경이 강하고, 재포획률이 높아 잡수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이외에도 돌돔과 송병이 등 어류는 정착성 어종으로 제주연안 어선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어초시설 등 어패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종자 방류를 확대해 어선어업과 해녀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파도 높아 더 재미있는 서핑 30일 제주도 이호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높은 파도속 서핑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 “위미항 개발 민간투자 협약 체결” 마리나 계류시설·요트수리소 등 229억 규모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오션프런티어(사장 강대건)는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아형)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민간투자자인 오션프런티

어는 2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리나 계류시설 75선석을 비롯해 클럽하우스 2동, 요트수리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위미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방문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과 업체간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에 따라 해상인도교, 연결교량 등 재정 기반시설을 건설해 민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미항 다기능어항이 단기간 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미항이 가지고 있는 어업기능 및 다양한 부가기능을 특화시키고 위미항을 어촌지역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 퇴임

“행정시장 직선제만으론 기능강화 한계”

고희범 제주시장

30일 퇴임한 고희범 제주시장이 임기중 힘들었던 점으로 도청 앞 불법천막 철거 등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때 행정시장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축산분뇨 불법배출과 관련한 문제 해결이 힘들었다고 소회를 털어냈다. >> 사진

2018년 8월 취임해 2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한 고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재직중 이룬 성과와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고 시장은 제주도 초지가 전국 초지의 48%를 차지하는데, 시가 정부에 초지법 개정을 건의해 6월부터 시행중인 초지법 개정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초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하려는 이들이 육지부에서 많이 들어왔고 초지를 무단 개간했지만 법이 허술해 원상복구명령도 못내리고 과태료도 한번밖에 부과하지 못했는데, 법이 개정돼 초지의 공공성을 강



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가 막아서 못했는데,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행정시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법인격을 갖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행정시가 거둬들이는 세수의 일정부분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주거나 조직·정원에 관한 권한을 조례로라도 자율권을 준다면 행정시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시정의 주인은 시민” 구현하는데 노력”

양윤경 서귀포시장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 건설을 위해 2년 동안 씬 없이 달려온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지난 30일 퇴임했다.

양윤경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의 소회를 풀어냈다. >> 사진 양 시장은 “전문 관료 출신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자 농부였던 제가 서귀포시장이라는 중책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과분하게 큰 사랑,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과제를 시정에 구현하고 공직사회에 각인시키려 노력했다”며 “끊임없는 소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시



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과 만나 소통했던 일들은 잊지 못할 기억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겹치며 어려움에 처한 갈굴 등 1차 산업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점도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농업의 현장에서, 제주 4·3의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조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필비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 · 만감류 영농안내

-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 **양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